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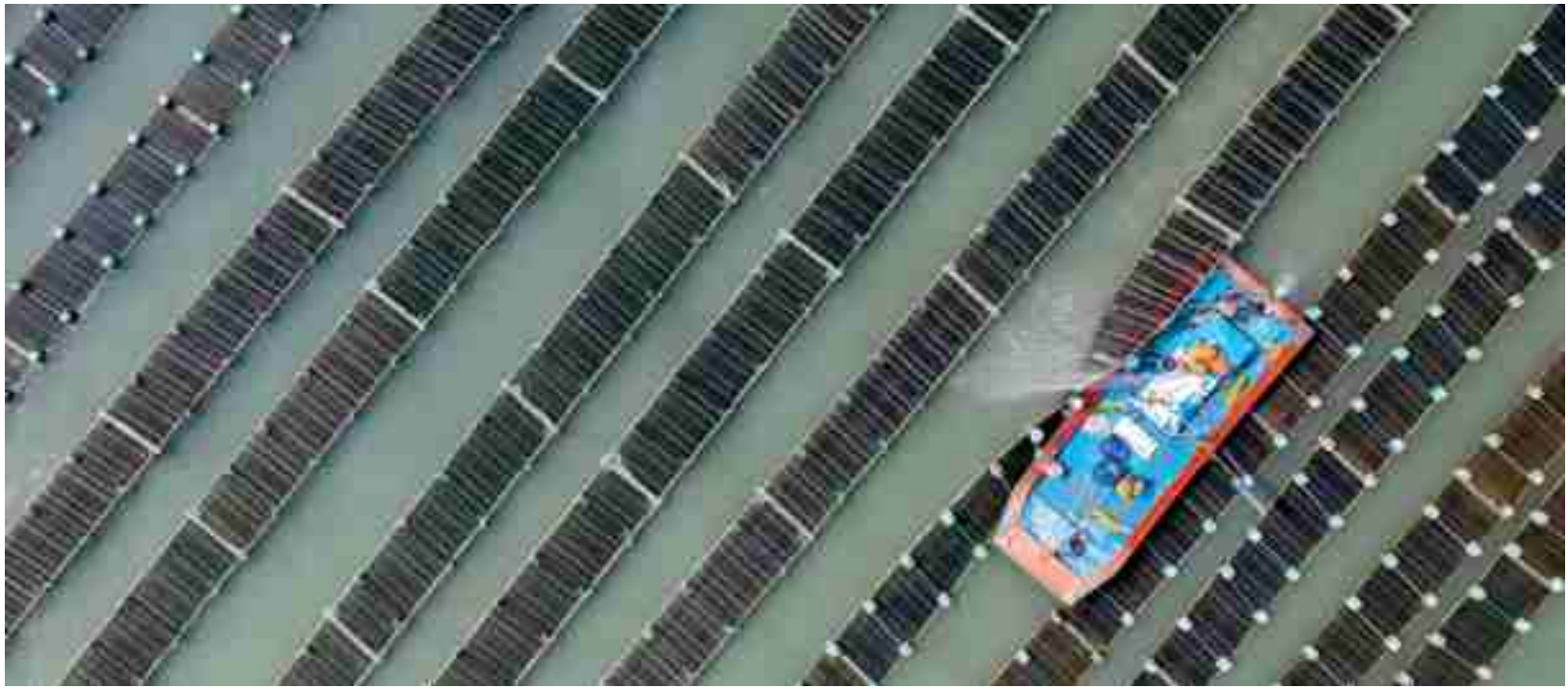
전남, 다이옥신 배출 기준초과 ‘최다’

전국 18곳 중 7곳 몰려...완도 5곳·신안·담양
4년간 45곳 중 행정처분 3곳 ‘숨방망이 처벌’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내 위반 시설 많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 가운데 배출 허용기준치를 넘긴 소각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도는 배출허용치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이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이옥신 초과 배출 소각시설 숫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다이옥신 초과배출 소각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숨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5ng-TEQ/Sm3)를 초과한 다

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소각시설 가운데 전남에서만 7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의 한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 농도가 450.857ng-TEQ/Sm로 측정되면서 법정 기준치를 90배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에서는 다이옥신 농도 최고치 소각 시설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곳의 배출시설이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완도 이외에 신안과 담양에서 각각 한 곳씩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배출농도를 측정하게 돼 있지만 최

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환경부의 가벼운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단 3곳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전체 다이옥신 배출기준 위반 건수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인력이나 장비가 따라가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업체가 자발적으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배출농도를 검사하는 ‘자가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 예산의 증원과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발 세척 작업 중 13일 오후 해남 송지면의 김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김발에 묻은 파래나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타우병증 조선대 연구진, 90% 예측기술 개발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hort연구단과 조선대 의예과 서은현교수팀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세포 손상과 치매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알려진 타우단백질 변성 유무를 90%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검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

여지고 있다.
조선대 연구진은 타우병증 예측기술 개발을 위해 65세 이상 256명을 대상으로 시공간 기억력검사와 MRI검사 결과를 이용해 뇌척수액에 존재하는 타우병증 유무를 예측했다.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우병증 예측모델의 정확도는 90% 내외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된 광주치매코hort(GARD Cohort)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알츠하이머병의 주 원인은 뇌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전과 타우단백질의 과인산화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이다. 특히 타우단백질의 과인산화에 의한 뇌세포 손실은 기억력 감소 등 인지기능 저하의 직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값비싼 PET검사나 검사가 어려운 뇌척수액검사를 받지 않고도 타우 병증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범용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 우수 선정

취약계층 공부방 리모델링 호평

광주시 남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주거복지 대상’ 평가에서 광주·전남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등 지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정책을 펼친 지자체에 공모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 참여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광주도시공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 구축하고, 해피빈 기부 활용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주택과 아동 공부방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실제 남구는 지난해 50년이 경과한 노후 흙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모자세대 집을 수리하기 위해 다촌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 장애인 복지관, 엠하우스 복지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 전국 4000여명의 후원자로부터 성금 1000만원을 모아 주택을 제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공공디자인 개발

광주 북구 내년 2월까지

광주시 북구가 내년 2월까지 광주의 대표 예술 여행지인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에 대해 공공디자인 개발에 나선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1 생활안전 및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호남권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중외공원을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 등 150만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안내 부스, 디지털 지도, 표지판 등 통합 안내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 기술과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쉼터를 갖춘 문화탐방로를 조성 지역민들에게 제공한다.
이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디자인 전문기관인 (재)광주디자인진흥원(대표 위성호)과 업무협약 체결 후 한우성 유니버설트렌드센터장을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문화·예술 공간에 생활편의를 더한 공공디자인을 실현해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네방넷’ 동구,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발대 13개 동 연대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광주시 동구가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내 마을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전날 동구내 13개 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동네방넷’ 발대식을 개최했다.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동네방넷’은 ▲소통모임 ▲소통워크숍 ▲활동가 역량강화 모임 ▲소통워크숍 마실돌기 등 주민 관계망 형성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네방넷’은 앞으로 ▲활동공유 간담회 개최 ▲구민 제안 적극 수용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앞장서고 의사 결정 시 원탁회의를 도입해 활동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13개 동 마을활동가 네트워크가 결성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마을활동가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하며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구현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라안과병원, 3년 연속 의료기관 인증 평가

보라안과병원은 2012년 1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2017년 2주기, 2021년 3주기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가 생긴 이후 3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3명의 분야별 전문 조사위원을 보라안과병원에 파견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에 걸쳐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복지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세부 조사항목이 늘어난 점 외에도 환자안전, 직원안전, 화재안전, 질향상 운영체계, 환자안전보고체계운영, 감염관리, 성과지표관리 등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들이 2주기 때보다 대폭 강화되고 엄격해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